

중학생 제28회 전국 독서올림피아드 시험지(2교시)

이름 :

학교명 :

감독 확인

응시번호 : □□□□-□-□□□□

◆ [가]와 [나]를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하세요.

[가]

“할아버지 보고 싶지 않아요?”

갑자기 엄마 아빠가 보고 싶었다. 내게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삼촌 농장에 보냈다고 원망하고 짜증이 났는데.

“가끔……. 아버지가 살다간 땅에서 사는데 왜 생각이 안 나겠냐. 그래서 더 열심히 농장을 꾸려 나가려고 한다. 내가 천성이 낭만주의자이고 세상살이 바쁠 것도 없으니까 되도록 자연스럽게 꾸려 가려고 해.”

삼촌의 말을 들으니 내가 삼촌을 닮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빠와 엄마는 뭐든 분명하고, 깔끔하고,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지 직성이 풀렸다. 하지만 나는 그런 엄마 아빠의 기대에 맞추는 게 너무 힘들었다. 마치 내가 바보가 된 것처럼 느껴져서인지 중학교에 올라와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생활에도 점점 흥미를 잃었다. 내 년이면 고등학생이 되는데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 이런 내 마음을 아무한테도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어쩌면 학교에서 부적응자로 찍힐까 봐 겁이 났던 것이다.

“후유!”

나도 모르게 갑갑한 마음이 터져 나왔다. 삼촌이 어깨를 툭 쳤다.

“왜 한숨이냐? 하늘 무너지겠다. 무슨 걱정 있냐?”

“그냥요.”

[나]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사 준 곤충 세계 도감 책도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온갖 곤충들이 사는데 누가 누구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난 아무래도 동물이나 곤충 이런 데 관심이 있나 봐요.”

내가 가방에서 책을 꺼내 보여 주자 삼촌은 눈여겨보지 않고 단숨에 주르륵 넘겼다.

“배고프겠다. 우선 고구마 삶은 거 먹어라. 삼촌이 맛있는 밥상 준비할게.”

고구마를 먹는데 자꾸 목이 메었다. 삼촌이 주스를 따라 주었다. 농장에 온 걸 실감할 수 있는 간식이었다.

“난 책은 좀 골치 아프더라. 그냥 주위에 사는 곤충들을 보면 되지 뭐 책으로 비교해 보냐.”

“그래도 책으로 봐야지 머리에 정리 정돈이 잘 되죠. 좀 더 깊이 연구의 목적이거나 할까! 혹시 알아요.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연구하고 살펴보고 기록해 두면, 나중에 큰 자료가 될 수 있고, 연구자가 될 수도 있죠. 나라고 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 《지금 행복하고 싶어》 중에서 -

1. [가]와 [나]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주인공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써 보세요.

2. 1번에 쓴 내용이 행복한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를 바탕으로 현재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지금 행복하고 싶어》의 독서 감상문을 쓰세요.

